



청라 푸르지오



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 오피스텔



세종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부동산 빙하기...생존 법칙은 '미래가치'

교통·생활 등 호재 풍부한 '숨은 보석'



부동산

경쟁이 심할수록 주변환경이 어려울수록 1등과 2등의 격차는 커진다. 경제 생태계가 갈수록 적자생존의 삭막한 정글로 변해 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매주 넘쳐나는 수많은 부동산 가운데 선택받는 부동산과 외면당하는 부동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는 가운데 부동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뭔가를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부동산 빙하기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분양사들과 시공사들이 더 좋은 교통환경, 생활인프라, 미래가치,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디자인에 고민하는 이유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지만 진정한 강자는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부동산 상품이 바로 1등이자 강자이다.

전 평형 거실 3면 개방형 '최고의 조망권' 자랑

●청라 푸르지오

대우건설의 '청라 푸르지오'가 특별분양 중이다. 청라국제도시의 최종심지에 있는 최고 58층 4개동, 전용면적 94㎡~139㎡ 총 751가구의 대단지다. 청라국제도시는 시티타워, 7호선연장선, 하나금융타운 조성, 스타필드 청라 등 다양한 대형개발호재가 예정돼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을 끈다. 호소성 높은 중대형면적 위주로 다양한 구성됐다. 모든 평형의 거실이 3면 개방형으로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할 수 있다. 건폐율이 9.9%에 불과하다. 덕분에 단지 내 대부분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청라호수공원과 서해 조망도 가능해 청라국제도시에서 으뜸의 자연 조망권을 자랑한다.

주민운동장, 어린이집, 테마정원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다. 휘트니스클럽과 실내골프장, 바비큐 파티공간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교육과 생활인프라도 좋다. 경명초, 청람초, 도담초 등 6곳 해원고 등 3곳 과 다수의 학원, 달튼 외국인 학

교가 있다. 송도와 더불어 교육 명문지역으로 손꼽힌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역사문화공원, 근린공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옆의 복합쇼핑몰 스퀘어7에는 CGV, 병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가양역까지 직통은행인 중앙버스전용차로(BRT·Bus rapid transit)가 있고, 광역버스를 이용해 합정, 강남 등 서울의 중심지역을 50분 내에 간다. 인천공항철도 청라역을 통해 홍대와 서울역도 40분 이내에 연결한다. 타당성조사가 끝난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곧 청라로 들어 올 예정이다. 9호선이 공항철도와 연결되면 청라역(예정)을 통해 강남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남-트램웨이 터블 역세권...다양한 생활인프라

●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 오피스텔

(주)노벨아이는 2월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3-2-(1, 2)블록에서 '위례 엘포트 한라비발디'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위례신도시의 관문격인 우남역과 트램웨이의 더블역세권 입지와 관공서, 바이오산업단지(예정), 5개 대학 등 주변 배후수요를 갖춰 실수요는 물론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시공은 건축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주)한라가 맡는다. 오피스텔은 지상 5층~20층, 전용면적 23~48㎡, 총 412실 규모로 공급된다. 판매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에 들어선다. 위례신도시 내부는 물론 강남 등으로 이동이 쉬우며 위례신도시의 중심인 트랜зит물, 휴먼링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3(위례한천프라자 2층)에 2월 오픈한다. 분양문의는 02-515-7777.

배후수요 3만2000여 세대...안정적 수익 기대

●세종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계룡건설이 세종시 2-4생활권 P2블록에서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중이다. 지

하 3층~지상 12층, 상가 302실, 오피스 10실이다. 연면적 4만9678㎡ 규모다. 주수요층은 3040세대다.

상가는 세종시의 문화 중심점으로 예정된 대형백화점과 도시상징 광장을 연결시켜준다. 2생활권의 3만2000여 세대를 배후수요로 뒤 안정적 수익이 기대된다. 로데오 상권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중심 상업지로 일부 상가는 현대화된 전통시장으로 특색 있게 꾸밀 계획도 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BRT정류장이 있어 세종시 전역에서의 인구유입도 기대한다.

층별로 1~2층은 북측 SPA브랜드, 다양한 F&B 배치, 3층은 패밀리레스토랑, 4층은 생활잡화, 5~6층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도하는 키즈카페, 헬스클럽, 클리닉 등이 배치된다. 분양문의는 044-868-1221.

영화의 전당 인접...비즈니스·관광수요 충족

●부산 센텀 프리미어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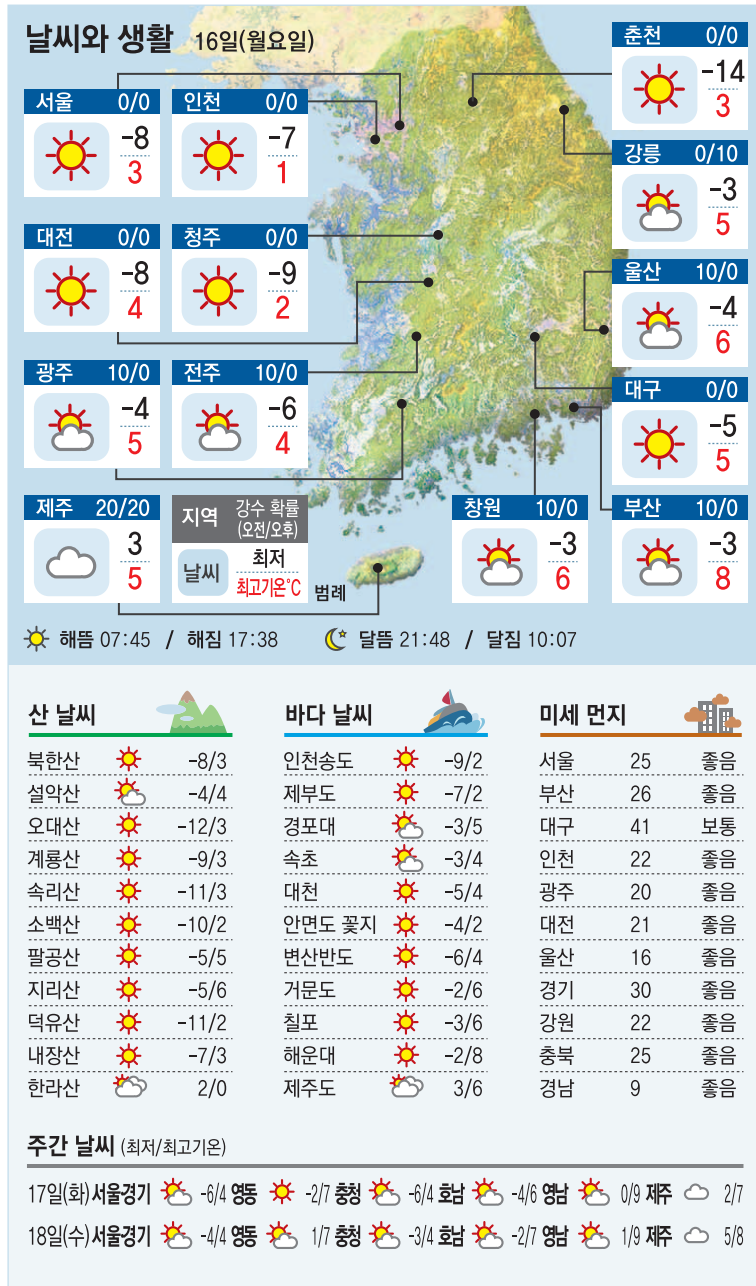
한국토지신탁이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21번지에 들어서는 '센텀 프리미어 호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2층, 전용면적 17~80㎡ 21개 타입, 총 603실 규모다. 세계 최대의 백화점이라는 신세계 센텀시티몰이 도보로 5분, 연 60만명 이상이 찾는 영화의 전당이 600m 거리다.

비즈니스 수요뿐만 아니라 관광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이 도보로 5분 안에 있다. 인접한 광안대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

종합부동산 금융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아 사업의 안정성도 더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나이스 신용평가의 2016년 7월 기업어울 신용등급 기준 A2 등급을 받은 상장 신탁회사다. 전국에 15만 세대 이상을 공급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말로만 하는 수익보장이 아니다. 위탁사 예치 보증금 액을 현금 100억원으로 책정했고 한국토지신탁이 수익보장금을 별도로 관리해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견본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1129-7번지에 있다. 2018년 2월 입실 예정. 분양문의는 051-781-0705.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6일(월요일) 음력:12월 19일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의 실행은 재고하기 바란다. 행운과 불운이 교차하는 시기로 이후의 운세는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매사가 순조롭게 발전되며, 해외사업에서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기발한 모험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경거망동을 삼가라. 특히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귀인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소원하는 일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길방:동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매사에 급히 서두르다 실패할 수 있는 날이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사에 임하라. 또 오늘은 도화의 날이기도 하다. 이성문제, 탈선을 조심하라.	길방:동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방:서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길과 흉운의 교차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게을러지기 쉬운 날이다.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해, 번개, 갈등. 운세: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길방:북
	오늘의 마음:씨름, 소심한 날. 운세: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음악이나 영화감상 등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겠다.	길방:남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소가 등을 빌릴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어 두둑한 보상이 기대된다.	길방:서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4, 6, 9, (2, 8)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쥐, 용, 원숭이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소, 뱀, 닭	

인사



한국관광공사

◇정보 ▲김경주 국제관광협력팀장 ▲심홍용 관광산업전략팀장

부고

▲김판관(홍콩축구대표팀 감독)씨 모친상=14일 오후 9시 진주 초전동 284-1번지 진주전문장례식장 vip룸 발인 17일 오전 7시 (055)759-4411

동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입사원과의 대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신입사원과의 대화'를 열고, 신입사원들에게 절제와 나눔이 있는 '행복한 성공'



최태원 회장

의 추구를 당부했다. '신입사원과의 대화'는 1979년 고 최충현 선대회장이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기업 경영철학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작한 이후 올해로 38번째 이어진 행사다. 최 회장은 신입사원들에게 "성공을 해서 즐기고 누리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해 경쟁, 물질, 권력 등에 종속되면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한 성공은 경쟁, 물질 등에 대한 탐닉을 절제하고, 사회와 공동체에 가까이 성공의 결과물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진정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입사원 때부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실패가 있더라도 묵심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행복"은 SK그룹의 경영철학으로, 최근 개정한 SKMS(SK그룹의 경영관리체계)의 핵심 열쇳말이기도 하다.

에쓰오일 임직원 200여명 우면산 산행



알 감디 CEO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와 임직원들이 최근 서울 우면산에서 산행을 갖고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신입사원들을 비롯한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직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면산 둘레길을 걸으며 덕담을 나눴다. 알 감디 CEO는 "회사 역사의 이정표가 될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전 임직원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입사원들에게 "에쓰오일이 도전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열정, 창의성, 진취성, 성공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4			2			5
		5	1		6	7	
	7			4			8
8				5			7
4		9	6		2	8	5
3				9			2
	9			1			6
		1	5		7	4	
	2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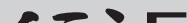
			2	7			5	3	
1					5				4
7				2	3				1
	1					7		9	
8		9					2		7
	6			4				5	
9					6	3			2
4			1						5
	2	1				4	8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스도쿠정답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6 2 7 1 8 9 5 3 4	8 9 5 6 1 2 7 4 3	2 1 7 6 9 5 8 3 4	8 9 5 6 1 2 7 4 3	2 1 7 6 9 5 8 3 4	8 9 5 6 1 2 7 4 3	2 1 7 6 9 5 8 3 4	8 9 5 6 1 2 7 4 3	2 1 7 6 9 5 8 3 4	8 9 5 6 1 2 7 4 3
2 1 9 7 6 8 4 5 3	9 8 2 4 1 7 6 5 3	7 4 2 9 1 6 8 3 5	2 1 9 7 6 8 4 5 3	9 8 2 4 1 7 6 5 3	7 4 2 9 1 6 8 3 5	2 1 9 7 6 8 4 5 3	9 8 2 4 1 7 6 5 3	7 4 2 9 1 6 8 3 5	2 1 9 7 6 8 4 5 3
4 7 6 1 9 5 8 2 3	8 9 2 5 7 6 9 1 4	1 8 9 6 3 2 5 7 4	4 7 6 1 9 5 8 2 3	8 9 2 5 7 6 9 1 4	1 8 9 6 3 2 5 7 4	4 7 6 1 9 5 8 2 3	8 9 2 5 7 6 9 1 4	1 8 9 6 3 2 5 7 4	4 7 6 1 9 5 8 2 3
7 6 2 9 8 1 5 3 4	9 5 1 8 2 4 7 6 3	6 8 9 1 7 4 2 5 3	7 6 2 9 8 1 5 3 4	9 5 1 8 2 4 7 6 3	6 8 9 1 7 4 2 5 3	7 6 2 9 8 1 5 3 4	9 5 1 8 2 4 7 6 3	6 8 9 1 7 4 2 5 3	7 6 2 9 8 1 5 3 4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www.sportsdonga.com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천로 1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2008년 3월 3일	
편집국장	이승우	스포츠2부	02 2020 1059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기사 의견 제보 및 투고	02 2020 1040	2008년 3월 24일 창간	
인쇄	동아일보사	so@donga.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